

## 초등학생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5, 6학년을 중심으로

유문숙 · 유일영<sup>1</sup> · 이규영<sup>2</sup>

아주대학교 간호학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sup>1</sup>, 문촌초등학교<sup>2</sup>

=Abstract=

### Attitudes on Gender Equ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on-Sook Yoo, Il-Young Yoo<sup>1</sup>, Kyu-Young Lee<sup>2</sup>

*Department of Nursing, Ajou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sup>1</sup>,  
Munchon Elementary School<sup>2</sup>*

**Objectiv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attitudes of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toward gender equality.

**Methods :** A cross-sectional survey study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1,280 students enrolled in 5th and 6th grades at 2 elementary schools in Kyung-Ki province by the school health nurses from March 8 to March 30, 2002.

**Results :** The study showed that the girls had significantly better attitudes to gender equality than the boys. However, girl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items indicating attitudes to rigid gender roles. Students with no older siblings had significantly better attitudes than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Students who received sex education from their parents had significantly better attitudes than students who did not have such education.

**Conclusion :** Girls and first born children have better attitudes to gender equality. Also, children who had opportunities to discuss gender issues with their parents showed better attitudes to gender roles and equality.

---

**Key words :** gender equality, attitudes,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x educatio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학교교육은 집권기회 번이나 세도적인 번에서 남녀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으나 뿌리깊게 내려온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성차별적인 교육은 그리 쉽게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인경(2002)은 전인교육이 추상적인 목표일 뿐인데 반하여 보다 실천적인 교육목표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말하며 성적(性的)으로 평등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전인교육 실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은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소화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됨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최경희, 2001). 양성평등 사고를 하는 사람은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이 확고하며, 자유의지로써 삶을 계획하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전통적으로 획일화된 성역할에 갇혀있는 사람들보다 지능과 창의력이 높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경임, 1998; 김혜원과 이해경, 2000). 이러한 양성평등 사고의 확립에 있어 초등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아동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많은 사회화 경험을 학습하게 되며, 가정에서 바람직하다고 가르쳐온 생각과 행동들이 전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맞지 않을 때 이를 직접 교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Witt, 1997).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남녀간의 성적 신체변화를 처음 경험하고,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제도적인 성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성의 정체감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학습되는 양성 평등 사고는 아동들의 전 인생에 걸친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 양성평등 교육과정은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

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양성평등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1,341명을 임의표출하여 해당학교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에 들어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수거하였다. 학교별 응답자수는 A초교 692명, B초교 649명이었으며 그 중 자료로써 불충분한 61부를 제외한 총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양성평등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 담당관실에서 발간한 성교육책자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2001)와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2000)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후 간호학 교수 2명과 보건교사 2명에게 자문하여 수정·보완되었다. 도구는 일반적 사항 10문항, 양성평등 문항 22문항으로 총 32문항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 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1.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양성평등 인식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양성평등 인식도와의 관계는 t-test 와 one-way ANOVA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성 적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49.8%, 여학생이 50.2%였으며 5학년 50.9%, 6학년 49.1%였

다. 동거가족은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며, 손위의 형제가 있는 경우가 47%, 동생이 있는 경우가 50.5%였다. 형제순위를 보면 첫째이거나 혼자인 아동이 52.3%, 둘째는 43.5%, 셋째인 경우는 4.2%였다.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97.5%,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35.9%였다. 또한 부모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37.2%였으며,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9%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상자 중 월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12.1%, 몽정을 경험한 남학생이 3.0%로 여학생의 생리적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80)

특 성	항 목	실 수	백분율(%)
성별	남자	638	49.8
	여자	642	50.2
학년	5	652	50.9
	6	628	49.1
동거가족*	아버지	1257	98.2
	어머니	1261	98.5
	오빠, 형, 누나	601	47.0
	동생	646	50.5
형제순위	첫째(외동)	670	52.3
	둘째	555	43.5
	셋째	55	4.2
아버지의 직업	직장인	968	82.8
	상업	187	14.7
	무직	1	0.1
	기타	30	2.4
어머니의 직업	직장인	339	26.2
	상업	124	9.7
	주부	790	61.7
	기타	31	2.4
부모의 맞벌이 여부	예	480	37.2
	아니오	800	62.8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	유	295	22.9
	무	985	77.1
여학생 월경경험	유	77	12.1
	무	562	87.9
남학생 몽정경험	유	19	3.0
	무	612	97.0

\* 복수응답

## 2. 대상자의 양성평등 인식도 비교

대상자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도 점수는 표 2와 같다. 양성평등의 총 평균평점은 여학생 0.777±0.17점, 남학생 0.648±0.20점으로 여학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12.306$ ,  $p=0.000$ ). 또한 총 22개의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남자, 여자답게 변화하는 것은 성호르몬 때문이다', 'TV, 성인만화, 성인 인터넷 사이트 등 우리 문화 속의 잘못된 성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의 두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학생에게 있어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몸가짐과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가 1점 만점에 0.98점 '가정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교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가 각각 동일하게 0.97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몽정은 남자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표시이다'로 0.41점을 나타내었다. 남학생에 있어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가정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0.91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몽정은 남자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표시이다'로 0.33점이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점수 차가 가장 큰 항목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은 자연스러운 것이다'(0.39점,  $p=0.000$ ), '여성이 가슴이 나오고 월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0.36점,  $p=0.000$ ) 등 주로 여성의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양성평등에 있어 성차별적 관점인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직장일을 하는 것이 좋다'(p=0.000),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의 할 일이 구별된다'(p=0.000), '전교 회장은 남자

표 2. 남·여 학생의 양성평등 인식도 비교 (n=1,280)

(단위 : 평균 ±표준편차)

항 목	남학생	여학생	p값
남자, 여자답게 변화하는 것은 성호르몬 때문이다.	0.78±0.42	0.79±0.41	0.231
몽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0.45±0.50	0.51±0.50	0.049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0.46±0.50	0.85±0.36	0.000
여성이 가슴이 나오고 월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현상이다.	0.53±0.50	0.89±0.31	0.000
월경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표시이다.	0.36±0.48	0.65±0.48	0.000
몽정은 남자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표시이다.	0.33±0.47	0.41±0.49	0.003
사춘기에 이성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0.56±0.50	0.65±0.48	0.001
행복한 부부는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한다.	0.74±0.44	0.86±0.34	0.000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책임이다.	0.63±0.48	0.73±0.47	0.000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	0.70±0.46	0.81±0.40	0.000
가정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0.91±0.28	0.97±0.18	0.000
가족간에도 예절을 지켜야 한다.	0.89±0.31	0.96±0.20	0.000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0.50±0.50	0.62±0.49	0.000
이성친구간에도 예절을 지켜야 한다.	0.71±0.45	0.85±0.36	0.000
몸가짐과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	0.88±0.33	0.98±0.15	0.000
이성친구의 몸의 변화에 대해 놀리면 안 된다.	0.74±0.44	0.93±0.26	0.000
성의 잘못된 생각은 남녀가 존중하는 태도를 잃게 한다.	0.47±0.50	0.54±0.50	0.017
TV, 성인만화, 성인 인터넷 사이트 등 우리 문화 속의 잘못된 성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	0.59±0.49	0.62±0.49	0.230
남녀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다.	0.71±0.46	0.81±0.40	0.000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직장일을 하는 것이 좋다.	0.78±0.42	0.89±0.31	0.000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의 할 일이 구별된다.	0.80±0.40	0.88±0.32	0.000
전교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0.85±0.36	0.97±0.18	0.000
총 계	0.65±0.20	0.78±0.17	0.000

가 하는 것이 좋다'(p=0.000)의 항목에 있어 각각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성평등 인식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성평등 인식도와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에 있어 양성평등 인식도 점수는 여학생이 17.09점, 남학생이 14.27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2.306, p=0.001). 또한 학년에 있어 6학년이 16.19점, 5학년이 15.1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t=-4.133, p=0.001), 동생과 함께 사는 경우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3.147, p=0.002). 형제 순위에 있어서는 첫째일 경우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F=13.148, p=0.000), 이를 Scheffe 사후분석한 결과 첫째가 둘째보다, 첫째가 셋째보다 각각 평균 점수가 높았다. 또한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 인식도 총점 비교 (n=1,280)

(단위 : 평균 ± 표준편차)

항 목	양성평등 인식도	t or F
성별	14.27 ± 4.49	12.306**
	남자	17.09 ± 3.68
	여자	15.19 ± 4.29
학년	5	16.19 ± 4.33
	6	15.69 ± 4.35
동거가족*	아버지	15.66 ± 4.34
	어머니	15.12 ± 4.38
	오빠, 형, 누나	16.06 ± 4.22
	동생	15.57 ± 3.94
	기타	16.20 ± 4.26
형제순위	첫째(외동)	15.24 ± 4.30
	둘째	13.76 ± 4.65
	셋째	15.75 ± 4.29
아버지의 직업	직장인	15.48 ± 4.46
	상업	15.63 ± 4.31
	무직	16.43 ± 4.05
	기타	15.60 ± 4.16
어머니의 직업	식상인	15.79 ± 4.79
	상업	14.76 ± 4.46
	주부	15.87 ± 4.29
부모의 맞벌이 여부	기타	15.41 ± 4.39
	예	15.87 ± 4.27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	아니오	17.71 ± 3.61
여학생 월경경험	유	15.08 ± 4.36
	무	17.56 ± 3.70
	유	17.04 ± 3.63
	무	17.74 ± 3.14
남학생 몽정경험	유	14.17 ± 4.49

\* 복수응답

\*\* p<0.01

\*\*\*p<0.001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성평등 인식점수가 높았으며( $t=9.416, p=0.000$ ), 남학생의 경우 부정 경험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양성평등 인식 점수가 높았다( $t=3.430, p=0.001$ ).

## 고 찰

본 연구는 성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5, 6학년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양성평등의 인식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자료(2000)에서 여학생의 양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며 여학생이 성적 역할에 대해보다 민감하며,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초등학교 양성평등교육은 주로 성교육 시간에, 남녀학생을 불문하고 학급단위로 일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학생에게 보다 집중적인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며, 남·여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양성평등에 대한 지식 중 가장 낮은 항목은 남녀학생 모두 '몽정은 남자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표시이다'라는 항목이었다. 이는 대부분 학교에서 성교육 과정에서 배운 항목이었으나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남학생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성이 가슴이 나오고 월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등 주로 여성의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여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렇듯 성적 신체변화에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남학생들은 인터넷, 서적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며(오희숙, 2000),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인 보건교사들이 성교육시 스스로 쑥스러워하며 신체적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윤가현(2000)은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는 성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교사들의 양성 평등 의식 수준은 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평등 의식 형성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Shamai(1994)는 아동이 선호하는 전문직종에 대한 조사에서 교사가 참여한 그룹과 교사가 참여하지 않은 그룹간을 비교하였을 때 교사가 참여한 그룹이 성별과 상관없는 직종을 보다 많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윤영옥(2002)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가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받은 교사는 14.5%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사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성평등에 있어 성차별적 관점인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직장일을 하는 것이 옳다',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의 할 일이 구별된다', '전교 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의 항목에 있어 각각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에서도 남녀위계상의 성차별 또는 성불평등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잔존하며, 여학생이 남성위주의 사회에 동화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경원(1997)은 남녀 학생이 같은 교과서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교육의 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교과서의 내용 속에 남녀의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었는가에 따라 남녀학생에게 주는 영향력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장세운(2001)은 기존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차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리 교과목에서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남녀이분적 직업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6학년 도덕교과에서 여성의 직업을 간호사, 연예인, 선생님으로, 남성의 직업을 과학자, 기술자, 운동선수로 제시하였고, 국어교과에서는 학급회의 사회자가 모두 남자어린이로 표현되어 있었다. 또한 사

회교과에서는 남성을 주된 생산자로 설명하며, 시의회 상임위원, 재판관 역시 남성으로만 묘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Martin(1994) 역시 미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사용중인 수학, 과학, 읽기 등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항상 저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여학생은 대부분 관찰하거나 기다리는 활동을 맡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의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Guilligan(1979)은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평가가 남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 여성의 다름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이 속에서 여성의 자기비하는 교육의 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특정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교과과정에서 성을 고려하는 교육상황을 설정하며, 성의 미묘한 여러 영향들을 감안하는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 부모로부터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양성평등 의식이 보다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태도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중재된다고 보고한 Fisher(1990), 허재경(2001)의 결과와 가정연계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오희숙(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Spiecker(1992) 역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친밀감과 성태도, 성지식, 성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Witt(1997)는 아동의 성역할 학습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기 시작하여 친구, 학교활동, TV 등에 의해 강화된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가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아동의 양성평등 의식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함께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앞으로 성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능학생의 양성평등 인식성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2개 초등학교 5, 6학년생 1,280명이었으며, 2002년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2점 척도 총 32 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11.0)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남학생이 49.8%, 여학생이 50.2%였으며, 5학년 50.9%, 6학년 49.1%였다. 대상자 중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9%에 불과하였으며, 여학생 중 월경을 경험한 학생이 12.1%, 남학생 중 몽정을 경험한 학생이 3%였다.

2. 대상자 중 여학생에게 있어 양성평등 인식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몸가짐과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였으며, '전교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가 다음 순위였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몽정은 남자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표시이다'였다. 남학생에 있어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가정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였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몽정은 남자가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표시이다'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사이의 양성평등 인식점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성이 가슴이 나오고 월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등 주로 여성의 신체적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직장일을 하는 것이 좋다', '전교 회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의 성차별적 관점의 항목에 있어 각각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성평등 인식도와와의 관계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t=12.306, p=0.001$ ), 동생과 함께 사는 경우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인식 점수를 나타내었다( $t=3.147, p=0.002$ ). 형제 순위에 있어서는 첫째가 둘째보다( $p=0.000$ ), 첫째가 셋째보다( $p=0.001$ ) 각각 유의하게 평균점수가 높았다. 또한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점수가 높았다( $t=9.416, p=0.000$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남·여학생의 양성평등 인식정도가 다르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2. 남학생의 경우 여성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3. 부모의 성교육은 아동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학교의 성교육에 있어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혜원, 이해경.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0;5(2):29-45
-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함께 풀어나가는 성이야기.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0
- 오희숙. 가정연계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윤가현. 성차별주의 타파와 평등을 위한 성교육, 학교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성교육세미나 자료집(기조발제), 2000
- 윤영옥.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양성평등인식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세운(2001). 남녀차별 성교육 교재분석, 교육현장 우수사례 보고서. 경상북도 교육청
- 장인경.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경원. 한국문화의 현대적 변용과 여성교육의 과제 - 양성평등한 문화발전을 위한 여성교육방향. 교육철학 1997;18:125-146
- 최경희. 과학교과에서의 양성 평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및 자료개발 방안.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001;21(3):213-230
- 한경임. 초등학생의 건전한 성태도 함양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허재경.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Fisher TD. Characteristics of mother and father who talk to their adolescent children about sex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1990;3(1):53-57
- Guilligan CF. Women's place in man's life cycle. *Harvard Education Review* 1979;49(4):431-446
- Martin JR. *Changing the educational landscape*. N. Y.; Routledg, 1994.
- Shamai S.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a gender stereotypes intervention program. *Adolescence* 1994;29(115):665-680
- Spiecker B. Sexual education and morali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1992;21:67-76
- Witt SD. Parental influence on children's socialization to gender roles, *Adolescence* 1997;32(126):253-259